

〈숙향전〉에 나타난 ‘고통’의 문학적 해석

김 현 화*

차 례

- | | |
|----------------------|----------------------|
| 1. 서론 | 3. 고통의 문학적 기능 |
| 2. 고통의 형상화 양상 | 1) 노정형 서사의 완급 조절 |
| 1) 육체적 소멸 주체로서의 형상 | 2) 수계(水界) 공간의 변주와 확대 |
| 2) 영적(靈的) 초월과 속박의 형상 | 4. 결론 |

국문초록

〈최치원〉,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하생기우전〉, 〈운영전〉 등의 서사 안에서 거듭 육체적 소멸을 경험한 여주인공은 조선 후기, 변모하는 시대상과 세계관에 맞춰 〈사씨남정기〉, 〈구운몽〉, 〈최척전〉, 〈춘향전〉 등의 서사 안에서 죽음의 세계를 부정하고 현실세계의 관습과 제도에 맞서 ‘고통’을 감내하는 강한 생명력의 주인공으로 재탄생한다. 〈숙향전〉은 그 일련의 문학적 관습 위에 선 작품이다.

〈숙향전〉에 나타난 ‘고통’의 형상화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고통’은 우선 여주인공을 육체적 소멸 주체로서 형상화한다. 숙향은 전통적이고도 관습적인 육체적 소멸 주체로서의 형상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유기, 투신, 유랑, 불구, 수장, 투살 등으로 인한 육체적 소멸을 경험

* 충남대학교

하는 주체이다. 당대의 제도권 하에서 보호 받지 못한 채 소외되었던 여성의 고통을 형상화한 양상이다.

<숙향전>의 ‘고통’은 또한 영적 초월과 속박의 형상화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선에게는 현실계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구가하는 곳이 초월계라면, 숙향에게는 오히려 현실계의 억압을 더욱 강조하는 속박의 형상으로 초월계가 그려진다. ‘고통’의 양상이 초월과 속박으로 나타난 것은 그만큼 복잡한 삶의 다양성을 드러내기 위한 문학적 방편에서 기인한다.

‘고통’의 문학적 기능은 우선 노정형 서사의 완급 조절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숙향전>은 정착지를 떠나 일정한 목적지로 떠났다가 귀환하는 노정형 서사의 전형을 보여준다. ‘고통’은 노정형 서사의 완급을 조절하고, 그 이면에 당대인의 삶을 새겨 놓는 기능을 한다. ‘고통’은 또한 수계(水界) 공간의 변주와 확대에 기여한다. 수계 공간의 설정은 현실계의 문제를 해소하는 기능을 한다.

<숙향전>은 남녀주인공의 각기 다른 ‘고통’의 형상화를 통해 당대의 민중이 처해 있던 억압과 핍박은 물론 현실 문제를 초월계로 옮겨 해소해 보고자 하는 관료의식, 혹은 행복한 삶을 염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구현한다.

주제어 : 숙향전, 고통, 육체적 소멸, 초월과 속박, 노정, 수계 공간

1. 서론

<숙향전>의 문학적 성과는 무엇보다 17세기 당대인의 삶을, ‘숙향’이라는 인물을 통해 집요하게 추적하는 서사적 리얼리티에서 찾을 수 있다. 서사적 리얼리티는 당대인이 당면한 난제, 그 사회가 드러낸 담론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감 없이 담기 마련이다. 서사 자체가 인간의 삶과 세계를 원천으로 하기 때문이다. <숙향전>은 이와 같은 현실적 담론에 부

응하는 작품이다. 물론 천상계와 현실계의 분립이나 해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환상'과 '운명'의 낭만적 서사로 일관하고 있지만, 조선 후기의 혼란한 시대상을 표상하는 혈육의 분리, 유기, 유리결식, 시혜와 호혜, 약자에 대한 권력의 횡포, 도덕적 관습과 현실적 본능의 갈등이 어우러지며, 장대한 삶의 이면을 낱알이 보여 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숙향전>은 끊임없이 학계의 관심을 집중시켰으며 다양한 층위의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염정소설로서의 가치를 타진하는 논의¹⁾에서 출발한 <숙향전> 연구는, 창작 연대를 밝히는 논의,²⁾ 이본 연구,³⁾ 배경 사상,⁴⁾ 서사 구조와 의미⁵⁾를 살피는 연구 등 다기한 영역의 논점을 확산시켰다. 이러한 기반

- 1) 성현경은 작품의 장르 상 「숙향전」을 적강소설로, 조동일은 영웅소설로, 임성래는 독자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고난담을 통한 대중소설로 접근하였다. 성현경, 『한국소설의 구조와 실상』, 영남대학교출판부, 1981;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임성래, 「숙향전의 대중소설적 연구」, 『배달말』 18, 배달말학회, 1993, 156쪽.
- 2) 이상구, 「숙향전의 문헌적 계보와 현실적 성격」,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4, 289쪽.
조희웅, 「17세기 국문 고전소설의 형성에 대하여 : 숙향전을 중심으로」, 『어문학논총』 16,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97, 27쪽.
- 3) 구충희, 「숙향전의 이본고」,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3.
이상구, 앞의 논문(이대본, 정문연A본, 경판본의 특성과 지향), 1993, 219-296쪽.
정한기, 「숙향전의 구조와 초월적 모티프의 작품 내적 기능에 대한 연구 : 국문 경판본과 한문 활자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20,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5, 441-472쪽.
차충환, 「숙향전 이본의 개작 양상과 그 의미 : 한문현토본과 박순호본 「숙향전」이라」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4,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0, 119-152쪽.
이창현, 「경판방각소설 숙향전 판본의 재검토」, 『열상고전연구』 31, 열상고전연구회, 2010, 37-68쪽.
- 4) 김현룡, 『한중소설설화비교연구』, 일지사, 1977, 346-351쪽.
나도창, 「숙향전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4.
민경록, 「숙향전 배경설화의 종합적 연구」, 『어문론총』 32, 경북어문학회, 1998, 59-82쪽.
김응환, 「숙향전의 도교사상적 고찰」,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3.

을 바탕으로 창작 기법과 관련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바흐친의 문체론 이론을 바탕으로 <숙향전> 등장인물의 다양한 언어적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든지,⁶⁾ 공간 구성과 그 원리에 주목해 주제의식을 탐문한 다든지,⁷⁾ 작품 안에 나타난 시간을 대립법적, 가역적, 순환적 구조로 논의한다거나,⁸⁾ 슬픔의 정서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닌 근원적 한계⁹⁾를 살피는 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숙향전>이 그만큼 무한한 해석의 세계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이 논문은 종전 연구의 깊이 있는 토대 위에서 ‘고통’이란 소재에 대해 접근해 보고자 한다. ‘고통’은 서사의 긴요한 작동 원력이자 주제의식을 발화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간의 <숙향전> 연구에서는 이 ‘고통’을 독립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듯하다. 어느 서사물치고 ‘고통’ 없는 삶을 다루지 않은 것이 없으며, 그것 없이 성장하는 인물 또한 없다는 보편적 인식 때문일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미 연구자들 사이에서 충족할 만한 연구 성과를 낸 작품에 대해 이처럼 상투적 삶의 양태로 접근하는 것이 특

5) 박경원, 「숙향전의 구조와 의미」, 『어문교육논집』 12,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1992, 247-259쪽.

경일남, 「숙향전의 고난양상과 결연의미」, 『논문집』 24,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7, 19-40쪽.

민경록, 「숙향전의 서사 구조와 의미 연구」, 『문화전통논집』 8, 경성대학교 부설 한국학연구소, 2000, 103-126쪽.

정종진, 「숙향전 서사 구조의 양식적 특성과 세계관」, 『한국고전연구』 통권 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1, 206-229쪽.

이명현, 「숙향전의 통과례적 구조와 의미 : 신화적 구조와 세계관 변용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4권 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113-135쪽.

6) 박태근, 「숙향전의 문체론적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4.

7) 최재웅, 「숙향전의 공간 구성 원리와 의미」, 『어문연구』 43, 어문연구학회, 2003, 473-499쪽.

8) 양혜란, 「숙향전에 나타난 서사기법으로서의 시간문제」, 『우리어문학연구』 3, 외국어대학교 1997, 103쪽-128쪽.

9) 서유경, 「숙향전의 정서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22, 한국고전문학과교육학회, 2011, 65-93쪽.

색 있는 논의로 다가서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까닭에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측면에서는 전체의 일부분으로써 축약하고 논의되었던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고통’의 측면은 그간 논의되었던 ‘여성 수난’이나 ‘장애’, ‘고난’ 등의 서사적 개념어와 대별되는 지점이 있다. 주인공 남녀의 삶 전반에 걸친 ‘고(苦)’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수난에 중점을 둔 여성 수난이란 서사적 개념에서 벗어나는 점, 등장인물의 마음과 육체의 고(苦)를 동시에 다룬다는 점에서 외부세계의 불가항력에 초점을 맞춘 장애나 고난의 서사적 개념에서도 벗어나 있다. ‘고통’의 형성 요인과 과정에 대한 등장인물의 심리적이고도 정서적인 차원에도 비중을 두고 논의할 것이다.

<숙향전>은 새로운 문학적 해석에 따라 우리 문학사에서 그 진가를 거듭 발휘하는 작품이다. 이러한 가치에 비중을 두고 <숙향전>에 나타난 ‘고통’의 문학적 해석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우선 2장에서는 <숙향전>의 서사 동력으로 내재한 ‘고통’의 형상화 양상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육체적 소멸 주체로서의 형상, 영적 초월과 속박의 형상이라는 측면에서 ‘고통’을 형상화한 양상에 주목하기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노정형 서사의 완급 조절, 수계 공간의 변주와 확대라는 측면에서 ‘고통’의 문학적 기능을 찾아본다. <숙향전>의 새로운 미학적 가치를 조명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¹⁰⁾

2. 고통의 형상화 양상

1) 육체적 소멸 주체로서의 형상

서사의 중추적 원동력은 인물이다. 현실계의 인간이든 이계의 생명체

10) 『숙향전』, 『한국고전문학전집』 5, 황폐강 역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3.

든 연속적 사건을 발생시키고 일정한 분량의 서사를 생성해 내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은 인물이다. 작가는 인물의 고난과 극복, 갈등과 해소, 성공과 실패라는 양극점 안에서 인물의 동선을 회전하며 장형의 서사를 만들어 나간다. 그런 까닭에 인물은, 특히 작가의 분신을 닮은 주인공의 경우 그 육체적 소멸을 쉽사리 용인하지 않는다. 육체적 소멸은 곧 죽음을 상징하고, 죽음의 세계로 떠난 인물을 통해서 더 이상 서사를 연장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남성주인공과 행복한 시간을 살던 여성주인공이 하룻밤, 사흘, 혹은 삼 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음의 세계로 떠나며 서사가 종결되는 이야기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최치원>,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하생기우전>, <운영전>, <주생전> 등의 서사 안에서 그 낯익은 이별의 순간들을 본다. 그녀들이 떠난 뒤 남자주인공들은 더 이상 현실세계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육체적 소멸을 함께 경험하거나 속세를 떠나 자취를 숨겨버리는 것이다. 작품의 동력을 잃은 셈이다. 그와 함께 이 작품들은 중·단편 분량으로 서사의 막을 내린다. 남녀주인공의 육체적 소멸로 더 이상 서사를 전개해 나갈 동력을 잃은 것이다.

조선 후기, 변모하는 시대상과 세계관, 가치관에 부응하기 위해 작가는 서사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여성 인물의 육체적 소멸을 부정하기에 이른다. <사씨남정기>, <구운몽>, <최척전>, <심청전>, <춘향전> 등의 여성 인물이 대표적인데, 그녀들은 죽음의 세계로 떠나는 대신 현실계의 관습과 제도에 맞서기 위해 기나긴 노정 위에 서서 간난신고의 시간을 감내하는 인물로 거듭난다. 절명의 비장미 대신 인고의 유려함을 선사한다. 짧게는 수년에서 20년, 80년에 걸친 장대한 시간 동안 고난의 길을 걸지만 육체적 소멸로 치닫지는 않는다. 그녀들이 현실계 존재라는 사실을 타당하게 하는 술한 고난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고난에서 고난으로 이어지는 연명 방식은 장구한 삶을 확장해 나가기 위한 문학적 방편

이다. 이전의 서사작품 인물보다 강한 생명력의 남녀주인공이 탄생하고, 장형의 서사작품이 문학사에 출현하게 되었다.

<숙향전>은 그와 같은 시대적, 작가적 요청에 따라 육체적 소멸 대신 간난신고의 서사로 여성주인공을 현실계에 안착시킨 대표적 작품이다. 숙향의 삶은 결혼과 함께 제도권 안에 정착하기까지 고통의 시간으로 점철된다. 그녀의 삶은 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봉변과 환란의 연속이라고 할 만하다. 그녀에게 주어진 연명의 삶은 당대의 혼란한 시대상인 동시에 서사작품의 장편화 욕구에 힘입은 창작 의식의 소산이기도 하다.

숙향이 전통적이고도 관습적인 육체적 소멸 주체로서의 형상을 보여주는 첫 장면은, 그녀가 다섯 살 때 병란 속에서 부모에게 유기되는 부분이다. 김전 부부는 강릉으로 피란 가는 도중에 도적을 만나 숙향을 반야산 바위틈에 앉히고 이튿날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한 뒤 피신한다. 이러한 행위는 눈앞의 참변 속에서 어린 딸을 구하기 위한 응변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린 딸을 도적 앞에 홀로 떨어트리고 자신들의 안위부터 도모하는 행위는 일반적 부모의 대응 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태어난 지 불과 다섯 해 만에 사지(死地)에 떨어진 숙향¹¹⁾이다. 숙향의 육체가 소멸하지 않고 다시 서사의 원동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죽음과 필적할 만한 것이 출현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극한의 환란과 봉변이다.

숙향을 육체적 소멸에서 구제해 연명의 길로 인도할 인물, 죽음의 세계와 비견할 만한 고난의 가시밭길 안으로 인도할 주체가 필요하다. 그 주체는 숙향과 가까운 인물일수록 고난의 강도가 세계 다가온다. 수용자

11) 대개의 고소설 여주인공들이 십오륙 세 정도의 규방 처자라면, 숙향은 별거벗은 채 길 위에 선 다섯 살짜리 여자아이다. 숙향의 이야기가 가련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결국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이가 어린 아이, 젊은 여성이라는 점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조혜란, 『숙향전의 숙향: 청순가련형 여성주인공의 등장』, 『고소설연구』 34, 월인, 2012, 51쪽.

의 입장에서 배신감과 절망감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유기 당한 어린 딸¹²⁾은 그 순간부터 갖은 환란과 재앙, 봉변 속에서 고통스러운 성장기를 보낸다. 이처럼 김전 부부의 어린 딸 유기는 서사의 향방이 육체적 소멸이 아닌 고통의 시간으로 연결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숙향의 고통이 다시 극적으로 형상화되는 부분은 표진강 투신과 갈대밭 화염 속에서도이다. 시비 사향의 무고로 누명을 쓴 채 숙향은 표진강에 투신하는 것으로 육체적 소멸을 기도한다. 그러나 문학적 관습으로 이행해 온 육체적 소멸 주체로서의 여성상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 숙향은 새로운 시대의 요청에 따라 연명함으로써 삶을 이어가야 하는 당위성을 부여 받는다. 그 연명의 시간 역시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이어진다. 갈대밭 화재 속에서 타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숙향의 고통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는다. 간신히 갈대밭에서 목숨을 구하기는 하나 숙향은 알몸으로 타인에게 연명을 구걸해야 하는 비극적 처지에 놓인다. 그녀의 별거벗은 육신은 동서유리하는 걸인 그 자체를 상징한다. 걸인의 형상이야말로 육체적 고통을 극대화하는 상징이다. 스스로 밥을 빌지 않는 한 아사 직전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몸으로 감내하기 힘든 수치심과 절망감을 주는 봉변이다. 결국 숙향은 고통의 시간에서 고통의 시간으로 연명하며 육체적 소멸 주체로서의 형상을 극복해 나간다.

숙향에게 닥친 고통은 술 파는 노파의 집에 의탁하며 주루의 신세로 떨어지는 부분에서도 부각된다. 신분 제도 하의 사회에서 가장 천한 신분인 기생의 이미지를 덧씌운 육체적 고통이다. 숙향의 육체적 고통은

12) 숙향은 사회적 보호망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존재라는 점에서 17세기에 연속된 기근이나 자연재해로 생겨난 버려진 아이들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숙향전』의 강력한 숙명론적 세계관은 숙향을 버린 부모, 숙향과 같이 버려진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 보호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회가 자신을 변명할 수 있는 기제로 쓰이고 있다. 김경미, 『숙향전-‘버려진 딸’에 대한 기억의 장』, 『고전문학연구』 39, 월인, 2011, 111쪽, 117쪽 참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자신의 천정배필인 이선을 만나는 과정에서는 술 파는 노파의 농간으로 불구 신세로 전락한다. 팔 하나가 없고, 귀먹고, 눈 멀고, 다리 한쪽만 온전한 불구의 처지로 떨어진다. 노파의 거짓 전언 이기는 하나 육체적 고통의 한계치를 보여주는 데 그보다 현실적 표현도 달리 없다. 주루의 기생과도 같은 천인의 신분에서 그보다 더 사회적으로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불구의 형상으로 그 육체적 고통이 전이된 것이다. 이러한 육체적 훼손 이미지는 숙향의 시부와 친부가 가하는 육체적 소멸 위협으로 이어진다.

이상서가 자신의 아들과 숙향이 혼례를 올린 사실을 알고 살해 명령을 지시한다. 그런데 그 타살 명령을 받는 이가 다른 아님 숙향의 친부인 김전이다. 시부와 친부에 의한 육체적 소멸 위협은 숙향의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다. 그간의 육체적 고통이 한시적인 것이었다면, 시부와 친부의 매질과 수장을 통한 살해 의도는 숙향의 제도권 안에서의 잔존 여부를 가늠 짓는 중대한 사건이다. 양가 가부장에 의한 육체적 소멸 위협은 당대의 여성 지위를 한눈에 가늠하는 단서이다. 창녀의 몸으로 공자를 유혹했다는 죄명이 그것이다. 그로 인해 타살과 수장을 당하는 위기에 봉착하는데 가까스로 가부장권의 세력 하에서 풀려난 숙향은 더 이상 자신의 육신으로 지상에서 운신하기를 꺼린다. 결국 그녀가 택한 마지막 선택 역시 육체적 소멸이다. 외롭고 쓸쓸한 처지를 비관하며 비단 수건으로 자결¹³⁾을 행한다.

이즈음에서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 등장한다. 이선의 등과 소식을 듣고 숙향이 자결을 포기하고 시부의 가부장권 안으로 편입하는 모습이다.

13) 이 같은 자살은 위기를 설정하여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수법이다.(임성래, 『숙향전의 대중소설적 연구』, 『배달말』 18, 배달말학회, 1993, 165쪽) 숙향은 표진강에서 투신을 기도하고, 사고무친인 신세를 비관해 비단수건으로 자결을 꾀한다. 이러한 형상은 이전 작품의 여주인공이 비극적 상황에 처했을 때 당연시했던 행위이기도 하다. 그러나 『숙향전』에서는 이 자살 기도가 연명(延命)의 장치로 활용된다.

이선의 등과는 숙향이 그 동안 감수해야 했던 고통을 일시에 소거한다. 5살 때 유기된 순간부터 숙향의 의복은 남루하거나 비천하기 짝이 없었다. 장승상 부부의 집에서 기거하던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노상에서 별거벗은 몸으로 구조를 받아야 하거나 주루에 의탁한 기생 이미지의 비천한 복색, 불구의 몸이 전달하는 남루한 복색, 시부와 친부에 의해 옥에 갇힌 죄수의 초라한 복색, 자신을 돌봐 주던 마고 선녀의 무덤에 엎드려 통곡하는 궁박한 차림새의 복색 등 육체적 고통을 상징하는 복색으로 연명했다. 그러나 이선의 장원 급제와 함께 숙향은 마침내 제도권 안의 구성원으로 정착함과 동시에 고통을 상징하는 복색으로부터도 탈피한다.

살펴본 것처럼 숙향의 고통은 육체적 고립과 소멸 위협으로 점철된다. 여아에서 여성으로 성장하는 동안 홀몸으로 떠돌아야 하는 숙향에게 세계는 위협적이다. 당대의 제도권 하에서 보호 받지 못한 채 소외되었던 존재, 특히 여성이라는 존재를 향해 부당하게 가해졌던 세계의 위력을 통해 <숙향전>은 실사관과도 같은 고통을 형상화함으로써 리얼리티를 선사한다. 동서유리 처지의 여성이 겪을 수밖에 없는 육체적 고통의 한계치를 고스란히 재현해 놓았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고통은 오히려 숙향의 생명력을 강인하고 집요한 연명의식으로 치환한다. 이는 육체적 소멸 주체로서 소외되고 차별받던 존재에 대한 현실적 묘사이자 그 대안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2) 영적(靈的) 초월과 속박의 형상

고전소설의 인물은 현실 속에서 자신이 처한 고난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초월계로 비상해 그 문제를 극복해 내고자 한다. 이는 당대인이 추구하던 이원론적 세계관 안에서 형성된 이야기 담론이자 창작 기법이다. <숙향전>은 이에 부응하는 이원론적 세계관의 서사를 펼친다. 주목할 것은 주인공인 이선과 숙향의 영적 초월의 성격이 다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선에게는 현실계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구가하는 초월의 형상이라면, 숙향에게는 오히려 현실계의 억압을 더욱 강조하는 속박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다 보니 '고통'의 강도 면에서 숙향의 삶이 상대적으로 육중한 무게감으로 다가오고, 이선의 삶은 무겁게 침잠한 작품 분위기를 활달하게 전환하는 상승감으로 다가온다.

우선 이선의 영적 초월에 주목해 보자. 이선의 현실계는 숙향의 경우처럼 고통의 서사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간난신고의 삶에서 비껴나 있다. 상서의 아들로 태어나 부귀를 누리며 성장한다. 그가 마주친 시련이라면 요지경 풍경 속에서 본 천정배필 숙향을 찾아 김전의 집에서부터 표진강, 갈대밭, 동촌의 술집 등을 도는 동선에서 볼 수 있는 초조함 내지는 긴장감 정도이다. 숙향과의 인연을 잇기 위해 고뇌하는 정신적 시련일 뿐 아사 상황에 빠지거나 불에 타 죽을 위기에 처한다거나 미천한 신분으로 전락하는 등의 육체적 고통에서 비껴나 있다.

이선의 정신적 시련은 구약담의 동선으로 이어진다. 봉래산과 천태산, 동해 용궁 같은 영적으로 초월한 공간에서 오히려 현실적 억압을 해소하는 시간을 보낸다. 구약담 서사 전에 천자의 아우인 양왕 딸과의 혼사 문제가 불거진다. 이선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봉래산으로 떠난다. 육체적 소멸을 향한 고통이라기보다 현실 문제에 대한 회피 성격의 여정이다. 이선의 영적 구유는 특히 신선계에서 그 성격을 확연히 드러낸다. 선관인 적선이 옥지환을 팔아 술값을 대라며 배를 끌고 가기도 하고, 칠현금을 타고 옥저를 부는 선관 여동빈이, 자신과 같은 신선이었던 이선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재미가 어떠한지 묻기도 한다.¹⁴⁾ 봉래산에서 만난 두 선관이 이선에게 구류선 찾기를 포기하고 바둑이나 두며 소일하자고 권하기도 한다. 개언초를 구해 용자의 황룡을 타고 귀환한 뒤 이

14) 이적선, 두목지, 안기생, 여동빈 등과의 만남은 이선의 유교적 충효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자유로운 인간의 내면적 지향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간의 사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환상의 유희적 기능을 보여준다. 김문희, 『숙향전의 환상성의 창출양상과 의미』, 『한민족어문학』 47, 한민족어문학회, 2005, 71쪽.

선의 혼사 장애 문제는 극복되고 초왕에 등극하며 행복한 결말에 이른다.

그에 반해 숙향의 영적 경험은 오히려 현실계의 고통이 생성한 원인을 깨닫도록 하고, 자신의 운명에 순응토록 하는 속박으로 작동한다. 숙향은 부모에게 유기된 뒤 정처 없이 유리하다 초월계로 들어선다. 그곳에서 자신이 월궁에서 득죄하고 내려온 선녀이고, 앞으로 15년에 걸친 인고의 시간을 감내해야 지상의 부모와 재회할 것이란 예언을 듣는다. 다섯 번의 죽을 액을 넘기고 나서야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예언이다. 불과 5세의 나이로 자신의 생 안에 점철된 고통의 시간을 인지하고, 그 시간을 감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운명으로 수긍한다. 이러한 영적 경험은 숙향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없도록 속박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현실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초월계를 구유하는 이 선회는 분명 다른 양상이다.

숙향은 철저한 운명의 수레바퀴 안에 갇혀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고통의 시간을 걸어 나간다. 표진강 투신의 경우, 장승상 부부의 집에 의탁해 살아오던 시간이 단절되고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자 선택한 길이다. 고통스러운 현실계에서 그녀의 죽적을 지워 내기 위한 극단적 행위이다. 그때 진입한 초월계는 새로운 삶을 향한 모색이기도 하다. 그런데 초월계 경험¹⁵⁾은 오히려 숙향이 고통으로 점철된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속박 기제로 작동한다. 자신이 전생에 월연단을 흠쳐 태을에게 주었던 기억을 되살리고, 그 죄를 소멸하기 위해 고행의 시간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경험일 뿐이다.

술 파는 노파의 집에 기거하며 교섭한 초월계의 경험도 마찬가지이다.

15) 숙향전에서 천상적 질서의 서사구조를 이루어 내는 요소는 꿈, 예언이다. 이들은 사건 발생과 결과를 암시 또는 현시해 주는 형식으로 선행적 서사라 할 수 있다. 서사체 내에서 이러한 선행 담화의 지속적, 반복적 배열은 『숙향전』의 천상적 혹은 신성소설적 성격을 보여주는 특징이다. 정종진, 『숙향전 서사 구조의 양식적 특성과 세계관』, 『한국고전연구』 7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1, 218쪽.

숙향은 자신과 태율이 함께 있던 요지경 풍경을 수로 놓아 시장에 내 놓는다. 요지경 그림을 매개로 이선과 재회를 하지만, 창녀의 몸으로 공자를 유혹한 죄목으로 시부와 친부에게 투살당하고 수장 당하는 위기에 처한다. 숙향이 요지경 풍경을 그림으로 남긴 것은 천정배필인 이선과 재회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주루에 머무는 숙향의 처지는 이선을 둘러싼 강력한 가부장제 사회의 틀에 반역하는 모양새다. 유기된 고아에 미친한 술집의 여자, 시부의 허락도 없이 혼사를 치른 중죄. 숙향의 영적 경험은 오히려 그녀의 처지를 더욱 비극적으로 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양상으로 나아가게 한다.

<숙향전>의 남녀주인공이 교섭하는 영적 세계는 이처럼 초월과 속박이라는 성격으로 달리 나타난다. 그것은 '고통'의 현실적 무게감이 다른 데서 발생한다. 숙향과 이선이 짊어진 생의 무게, 그것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숙향과 이선의 목표는 같은 곳을 지향한다. 천정배필로서의 인연을 맺고 화평한 세계를 이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양상이 초월과 속박이라는 양상으로 나타난 것은 그만큼 복잡한 삶의 다양성을 드러내기 위한 문학적 방편이다.

3. 고통의 문학적 기능

1) 노정형 서사의 완급 조절

<숙향전>은 정착지를 떠나 일정한 목적지로 떠났다가 귀환하는 노정형 서사의 전형을 보여준다. 노정형 서사는 비단 『숙향전』만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이야기 구조는 아니다. 이 작품 이전의 다양한 서사물에서 문학적 전통으로 내려오는 이야기 방식이다. 건국신화에 등장하는 영웅들이나 '거타지', '원광법사' 같은 범인들의 노정형 서사가 그것이다. 노정형 서사의 특징은 노중(路中)에 다양한 사건이 벌어지며 각양각색의 인

물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다양한 인물의 등장은 그만큼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실 문제를 불거지게 하고 여러 층위의 사건을 펼쳐지게 하므로 그 작품이 장형의 서사로 발전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숙향전>은 이 같은 노정형 서사의 특질을 충실히 이행한 작품이다.

<숙향전>의 노정형 서사는 이전의 서사물보다 생생한 현실감을 전달한다. 특히 여주인공 숙향이 체험하는 고통의 무게가 기시감 내지는 동일시의 감정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행복’이란 것처럼 희망적이고, 미래를 기약할 수 있고, 피안을 꿈꾸어 볼 수 있는 것이라면 것처럼 당대의 독자와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절망스러운’, ‘현재의 문제’가 적나라한, ‘피할 수조차 없는 목전의 현실’이 정신적 육체적 환란과 장애로 나타나는 고통은 그래서 동질감 형성에 성공했다고 할 것이다. <숙향전>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전통적 창작 기법인 노정형 서사를 선보이고 있는데, 남녀주인공이 겪는 극한의 고통이 직선으로 나아가는 서사의 완급 조절을 담당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 작품의 남녀주인공이 보여주는 노정형 서사는 순차적 동선으로 나타난다. 숙향과 이선이 천상계에서 득죄하여 인간계로 환생하였다가 다시 초월계로 귀환하는 작품 전체의 구조를 보면 그 노정은 동시성을 띤다. 그러나 서사의 주 무대인 현실계를 중점으로 보면 숙향의 노정이 이루어진 후에 이선의 노정이 이어지는 순차적 동선을 보여준다. 두 인물의 노정을 순차적으로 진술하는 이야기 방식은 작품의 분량을 확대하는, 곧 장형의 서사로 나아가게 하는 실질적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속도감 있는 서사를 선사한다. 동일한 공간과 동일한 인물관계에 정체되지 않는 긴박한 서사 전개에 힘입어 <숙향전>은 다양한 인물과 사건 속에서 흥미를 자아낸다. 눈에 띄는 점은 노정형 서사의 속도감을 완만하게 조절하는 기능으로 ‘고통’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고통의 성격이 남녀주인공에 있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 이색적이다.

주인공인 숙향과 이선의 노정은 한시적으로 마무리되는 서사가 아니

라 현실계와 초월계를 두루 섭렵하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표출하는 서사 장치로 작용한다. 곧 현상계에서 차단된 행복의 근원, 육체적 환난과 소멸을 극복하고 영생의 국토로 상징되는 천상계 존재로서의 복귀 내지는 귀환을 그리는 노정이다. 숙향을 통해서만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계로의 노정을 그리고, 이선을 통해서만 영혼의 불멸을 보여주는 이계로의 노정을 그린다. 같은 노정형 서사를 보여주는 하나 그 고통의 성격¹⁶⁾에 있어 차별점이 있다.

인간의 육체는 시공간의 물리적 법칙에 갇혀 있다. 삶이 다하면 자신이 살았던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분리된다. 의지와는 상관없는 단절이다. 숙향의 육체적 한계를 넘어선 초월계로의 진입은 이런 면에서 극단의 고통을 요구한다. 물리적 시공의 압력을 해체하고 영생의 시공으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그 육체가 소멸 직전까지 가는 극단적 상황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선의 초월계 진입은 육체적 고통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초월적 존재들의 도움, 이를테면 동해 용왕의 아들 호위를 받으며 노정의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는 것처럼 크고 작은 호위를 받으며 목적지인 봉래산에 이른다. 도중에 만나는 신선들과의 유유자적한 시간을 보면 오히려 평소 가보고자 욕망하고 꿈꾸던 곳을 둘러보는 듯한 정신적 소유 상태라고 할 만큼 그 노정이 평탄하다.

이런 이유로 노정형 서사의 완급 조절과 '고통'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서는 이선보다는 숙향을 통해 접근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숙향의 노정은 5살 되던 해에 병란이 일어나 반야산에서 부모에게 유기되는 순간부터 시작한다. 그 노정은 기아 상태의 극단적 고통을 수반한 것이다. 그런데 도적이 숙향을 보고 훗날 귀하게 될 상을 가진 아이임을 알아보고

16) 『숙향전』에 나타난 인물 사이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타자의 고통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고통을 겪는 대상은 어느 특정한 인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 모두에게 해당된다. 이 때문에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은 상호보완적이며 공감할 만한 것으로 다가온다. 이기대, 『숙향전에 나타난 생태적 세계관』, 『국제어문』 37, 국제어문학회, 2006, 77-78쪽.

마을 근처에 두고 가니 행인들이 불쌍히 여겨 밥과 물을 준다. 뿐만 아니라 황새, 까치, 잔나비, 청조, 명사제의 선녀 등 자연계 존재나 초월계 존재들이 나타나 아사를 해결해 주고 세상에 홀로 떨어진 육신을 보호해 준다. 황새 한 쌍이 가을바람에 웅크린 숙향의 몸을 날개로 덮어주고 잔나비가 삶은 고기를 물어다 주고 푸른 새가 꽃봉오리를 물어다 주어 허기를 면한다.¹⁷⁾ 그러다 보니 이때까지는 숙향의 육체적 고통은 크게 부각되지 않으며 그들의 인도로(사슴을 타고 이동)¹⁸⁾ 자연스럽게 양부모가 되어 줄 장승상 부부의 집까지 이르는 동선을 그릴 뿐이다.

장승상 부부의 집에서 10년 세월을 평탄하게 보내지만 시비 사향의 모함으로 다시 노정을 떠난다. 장승상 부인의 금봉차와 옥장도를 훔쳤다는 도둑 누명을 쓰고 떠난 노정이다. 숙향은 표진강에 이르러 치마를 잡고 물속으로 투신한다. 표진강이라는 공간부터 숙향의 육체적 환란과 고통은 극대화된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몸을 의탁할 공간이 소멸했다. 공간의 소멸은 인물의 행보에 위기로 다가온다. 숙향의 표진강 투신은 바로 이와 같은 공간의 소멸에서 기인한 것이며, 서사의 확장을 위한 새로운 계기로 작용한다. 표진강에서 초월계 존재의 개입으로 연명한 숙향은 수천 리에 걸쳐 펼쳐진 갈대숲에 다다른다. 홀로 갈대밭 속에서 겨우 살아나 노상에 앉아 굶주림에 떠난다. 한 노파를 따라가 그날부터 술 파는 주루에 의탁한다. 천정배필 이선을 만나 혼례를 올리지만 낙양태수에게 끌려가 죽을 고통에 처한다. 창녀의 몸으로 공자를 유혹했다는 죄목 때

17) 최기숙은, 이와 같은 비인격적 존재들이 숙향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근원으로 보았다. 곧 『숙향전』이 만물정령론에 근간한 ‘동화적 상상’의 세계를 전경화한 작품이라는 분석이다. 최기숙, 『17세기 고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유랑과 축출, 그리고 귀환의 서사』, 『고전문학연구』 38, 월인, 2010, 49쪽.

18) 숙향의 조력자들은 현실계에서는 하층에 속하는 도적이거나 피난민이며 그밖에는 자연물과 신인들이다. 권세를 가진 이들이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민중이 서로 돕고 자연과 인간이 하나로 이어지며 천상과 지상이 소통하는 세계이다. 김수연, 『소통과 치유를 꿈꾸는 상상력, 숙향전』, 『한국고전연구』 2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444쪽.

문이다. 이후 천상계의 개입으로 숙향은 자신을 죽이려고 한 이상서의 눈에 들어 시대에 의탁한다. 천하국색의 용모에 그 근본이 귀족의 후예라는 사실에 이상서 부부가 감응한 결과이다. 선이 알성과에 장원 급제하여 숙향과 혼인한다. 숙향은 정렬부인에 오르고 친부모인 김전 부부와도 재회해 행복한 시간으로 나아간다.¹⁹⁾

숙향의 노정형 서사가 이처럼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공간으로 연속되는 것으로 이어지지만 했다면 당대 독자의 감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을 것이다. 숙향의 노정이 당대인과 교감하며 인기 소설로 부상한 이유는 단순히 공간들의 배열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구나 호응할 만한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서사를 심어 놓았기 때문이다. 숙향의 처지에 공감하는 감정적 유대감은 이 노정형 서사의 완급 조절을 담당하는 '고통'이란 삶의 극한점이다. 그 '고통'은 육체적 극한의 상황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긴장감 넘치는 서사에 일조한다.

시공의 변주에만 의지해 자칫 밋밋할 수 있는 노정형 서사의 완급 조절을 하는 것으로, 숙향이 마주한 육체적 고통이 강력한 문학적 기능을 한다. 숙향의 표진강 투신은 '자살'이라는 매우 극단적 고통에 직면한 상황을 보여준다. '자살'이 이처럼 자연스럽게 개입한 것은 당대의 여성이 처해 있던 사회적 환경과 밀접하다. 부모와 남편으로 상징되는 한 가정의 일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못한 여성이 노정에 들 경우 사회적 정치적 제도 하의 구조 대상이 되지 못한 채 유리해야 했던 현실을 복사해 낸다. 아울러 <숙향전> 안에서 노정형 서사의 완급을 조절하는 기능으로 작용한다.

19) 숙향은 더 이상 길 위의 존재가 아닌 '집 안의 존재'로 머문다. 집이야말로 여성의 궁극적 처소이며, 집 밖의 세계란 '고난'과 '수난'을 안겨줄 뿐이라고 상상하게 만드는 서사문법이 작동한 결과다. 그런 의미에서 귀환의 서사는 여성이 집으로 돌아온 사실 자체에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겪었던 어두운 기억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고 처신했는가를 통해 여성적 삶의 의미에 관해 제안하고 이를 성찰 가능한 것으로 변전시키는 힘에서 발견한다. 최기숙, 앞의 논문, 51쪽.

노정형 서사의 완급을 조절하는 기능으로 숙향이 마주하게 되는 고통으로 태장과 수장이 있다. 친부와 시부가 숙향에게 가하는 태장과 수장 역시 서사의 완급 조절을 하는 육체적 고통으로 작용한다. 만약 이 태장과 수장이라는 고통의 과정 없이 숙향이 친부와 재회하고, 이선과의 혼인을 허락받는 이야기로 나간다면 여주인공의 공간 배열에만 머무는 노정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러나 여자아이였기 때문에 유기당할 수밖에 없었던 노정의 성격이 당대의 사회 제도권 안에 편입하지 못한 채 유리걸식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의 노정으로 이어지고 있어 실사감을 더한다.

숙향의 천하국색 용모와 관복 짓기 시험에서 드러난 바느질 솜씨 등의 여성적 어필과 귀족 가문의 후예라는 제도권 후광, 그리고 이선과 혼인함으로써 한 가문의 정부인으로 안착하는 행복한 결말이 없었다면 숙향의 노정은 끝이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 노정의 완성은 숙향이 감내하고 극복해 낸 육체적 고통으로 이루어진다. 남성 중심의 가계 안에서 이탈한 여성의 노정이 얼마나 꺾박받는 행로인지,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한 것인지 <숙향전>의 노정형 서사를 통해 접할 수 있다. 이 소설의 ‘고통’은 곧 노정형 서사의 속도감을 조절하고, 그 이면에 당대인의 삶을 새겨놓았다는 점에서 특색 있다.

2) 수계(水界) 공간의 변주와 확대

<숙향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둘러싼 배경²⁰⁾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수계 공간이다. 주인공인 숙향의 고행담과 이선의 구약담은 물론 숙향의 부친인 김전이 위험에 처한 거북을 구해주는 시혜담²¹⁾, 거북

20) 『숙향전』의 세계는 거대한 소통의 체계로 상정된다. 이승은 전생과 섬세한 숙명의 고리로 연결되고, 이승에서 행한 마음과 처신은 다시 미래를 구축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동물(자연)과 인간, 꿈과 현실, 전생과 이생, 신과 인간의 이분법적 세계는 양립 가능할뿐더러 긴밀한 관계망을 형성한다. 최기숙, 앞의 논문, 48쪽.

21) 『숙향전』에서 인간과 동물이 주고받는 시혜담에 관한 연구는 윤리의식, 인과응보적 도덕관념, 환상적 서사 전략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신재홍, 『숙

이 은혜를 갚는 보은담²²⁾에서 연이어 수계 공간은 특별한 배경으로 등장한다. 특히 등장인물의 재생과 연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서사 동력으로 작동한다. <숙향전>의 수계 공간이 재생과 연명을 담당하는 축으로 배치된 것은 선대 문학작품 안에서 관습적으로 활용하던 서사 기법을 전승한 것이다.

현실 안에서건 문학작품 안에서건 인간을 둘러싼 세계를 그리는 데 있어 가장 보편적이고도 익숙한 자연 대상이 산과 강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숙향전>의 수계 공간 출현 양상은 그리 신선한 것도 아닐 듯싶다. 관습적으로 이행해 온 창작 구성물이라 하더라도 시대와 작가에 따라 현실의 삶을 은유하는 구성 장치로 달리 표현되어 왔다. 그런 만큼 <숙향전>이 함의한 재생과 연명으로서의 수계 공간 출현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당대의 전기수들이 애호했던 도서 목록에 <숙향전>이 속해 있었고, 대중소설²³⁾로서 세대를 뛰어넘는 유행을 불러일으킨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대중적 소통 공간이 중심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대중적 소통 공간이었던 수계 공간은 등장인물의 재생과 연명에 긴요한 역할을 한다. 숙향이 본격적 노정에 나서며 만난 표진강을 보면, 자살을 감행하는 숙향에게 재생의 기회와 연명의 시간을 동시에 부여해 주는 기능을 한다. 숙향과 관련한 수계 공간이 현실계 안에 위치해 있다면, 이선과 관련한 수계 공간은 초월계에 존재하고 있다. 숙향과 관련한 수

향전의 미적 특질』, 『이수봉박사 정년기념 고소설 연구논총』, 경인문화사, 1994, 538쪽; 이상구, 『숙향전의 문헌적 계보와 현실적 성격』,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1994, 255-256쪽; 김문희, 『숙향전의 환상담의 서사전략과 독서효과』, 『한국학연구』 37,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170쪽 참조.

22) 보은은 현세적 질서 즉 유교적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써 현세적 가치관 혹은 현세적 가치의 의미를 드러낸다. 곧 당대의 도덕적 윤리관을 이끌어 내는 축이 보은의 서사이다. 정중진, 앞의 논문, 214쪽.

23) 임성래는, 숙향의 고난 과정이 독자들의 연민과 동정을 통한 감정이입을 불러일으키고, 천상적 존재의 지속적 보은 서사가 권선징악적 주제를 구현하고 있어 『숙향전』이 당대에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임성래, 앞의 논문, 157쪽 참조.

계 공간이 표진강 한 곳에 머물러 있다면, 이선과 관련한 수계 공간은 현실계뿐만 아니라 초월계로 확장해 다양한 형상과 성격으로 변주된다. 그런 가운데 이선이 느끼는 심리적 중압감을 전달한다. 다시 말해 이선의 고통은 숙향의 고통처럼 육체적 단절이나 소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갈등에 집중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수계 공간들은 이선의 심리적 압박감을 형상화해 내는 장치이다.

이선이 김전의 집을 찾아갔을 때 그녀가 병란에 부모와 떨어져 생사를 모르겠다는 사실을 접했을 때의 낭패감, 표진강에서 숙향이 투신한 사실을 알고 느끼는 슬픔, 갈대밭 화덕진군에게 숙향의 향방을 물으며 수행해 내는 발바닥 문지르기(이것은 그녀와 조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수반한 심리적 상황), 동촌의 술집 노파가 숙향을 숨겨 두고 보여주지 않을 때의 안달하는 마음과 곧 그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의 교차, 숙향과 혼례를 치르기 위해 고모인 여부인을 조력자로 내세울 때의 초조함, 자신의 부친이 숙향을 옥에 가둔 사실을 알고 경성 집으로 떠날 때의 황망함, 부친의 종용을 뿌리치지 못하고 숙향과 헤어진 채 태학으로 떠날 때의 절망감, 장원 급제한 뒤 숙향을 찾았으나 행적이 묘연하자 불효를 할지라도 그녀를 좇아 지하로 가리라 다짐할 때의 비장함 등이 그가 보여주는 정신적 고통의 전말이다.

이 심리적 중압감이 배가되어 나타나는 곳이 바로 다양한 신들의 세계²⁴⁾의 세계를 그린 구약담 공간이다. 이선이 신비한 약초를 구하기 위해 떠난 공간은 봉래산과 천태산, 동해용궁 등이다. 처음부터 구약담 공간은 인간세계가 아닌 곳으로 설정된다. 이선의 선계 노정은 동해 용궁

24) 『숙향전』이 다양한 신적 존재들을 등장시키고, 그들 각자에게 다른 벡터를 부여하는 것은 기법의 문제인 동시에 인간관, 세계관의 문제이기도 하다. 신성하고 엄숙한 질서가 세계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장악하도록 하는 대신, 개별적 존재의 의지와 판단을 존중하고 크든 작든 존재의 선택이 가지는 영향력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지연숙, 『숙향전의 세계 작동 원리 연구』, 『고소설연구』 24, 월인, 2007, 212쪽.

에서부터 회회국, 호미국, 유구국 등으로 이어진다. 동해 용왕의 공문 한 장으로 그 공간들을 일사천리로 통과한다. 물론 교지국이나 우회국이란 초월계에서 구리성에 갇히고, 크기가 열 자나 되는 짐승에게 잡아먹힐 위기에 처하기도 하지만, 이선을 호위하고 다니는 용자의 부적으로 짧은 순간에 위급한 상황을 모면한다.

이때 드러나는 공간의 성격이 특이하다. 지상(현실계)에서 이선이 마주한 수계 공간은 숙향이 투신한 표진강뿐이다. 그런데 초월계에서는 이르는 곳마다 수계 공간으로 상징된다. 제일 먼저 배를 타고 도착한 동해 용궁은 수계 공간의 성격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곳이다. 오래 전 장인인 김전이 용왕의 누이를 반하수에서 살려 준 보답으로 귀한 대접을 받는 수계 공간이다. 용왕은 자신의 아들에게 봉래산까지 이선을 호위하도록 명한다. 이후 이선이 거치는 호미국, 유구국, 교지국 같은 경우 뚜렷하게 수계 공간의 특징을 보이지 않는 곳들이다. 그러나 용자가 호위하며 무사통과한다는 자체로 수계 공간의 성격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어 등장하는 우회국 같은 경우 열 자나 되는 짐승이 이선을 잡아먹으려고 하자 급히 배에 올라 용자가 준 부적으로 물리치는 수계 공간이다.

이선은 이후 선계 공간으로 접어드는데, “배가 바람에 밀려 정처 없이 떠 밀려가더니 물속에서 한 선관이 나와” 이선에게 진시황과 한나라 무제도 구하지 못한 것을 얻으러 가느니 헛수고 말고 자기와 선정이나 구경하고 술집이나 찾아다니자고 권한다. 물속에서 나온 선관은 적선 이태백이다. 다른 선관까지 더불어 “이선의 배를 끌며” 술집으로 향하자고 회유한다. 당나라 때 사람으로 도교 팔선에 속하는 여동빈이 “물 위에 뜬” 칠현금을 타고 옥저를 불며 다가와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재미가 어떠하냐고 묻는다. 이어 다른 선관이 “일엽주를 타고 다가와” 예전 자신들과 함께 살았던 기억이 나느냐고 묻는다. 물속은 아니되 수계의 성격을 띠는 공간들이 거듭 출현하고 있다. 현실계의 수계처럼 물에 잠기

면 옷이 젖는 것도 아니고, 물과 물의 경계가 뚜렷한 것도 아니다. 자욱한 안개 속에 뜬 풍경처럼 수면과 수심이 모호한 수계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보여준다.

신비한 수계 공간의 설정은 현실계의 문제에 봉착해 구약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선의 심리적 고통을 일정 부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선은 숙향과 혼사를 치르는 가운데 천자의 아우인 양왕의 딸과 혼인하기를 요구 받는다. 양왕의 딸 매향이 이선의 풍모에 반해 혼인하기를 원하나 이선은 피병을 핑계로 입궁하지 않는다. 이를 분하게 여긴 양왕이 이선을 해할 뜻을 품는다. 황태후의 병을 빌미로 양왕이 이선을 추천하여 구약의 길을 떠난 길이므로 숙향과 부모를 뒤로 하고 초월계로 떠나는 이선의 심리적 중압감이나 압박감은 고통 그 자체였을 것이다. 자신이 황태후를 구할 영약을 구하지 못하면 가문에 화가 닥칠지도 모를 일이고, 인간세계가 아닌 초월계로 떠나는 길이므로 생사를 기약하기도 어려웠다. 이러한 이선의 심리적 고통이 선계의 수계 공간에서 배에 탄 채 신선들에게 이리저리 이끌리며 유유자적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해소되는 것이다. 신선들은 현실계에서의 문제를 잊고 자신들과 한가한 시간을 보내자며 회유까지 한다. 현실문제로부터 탈피하고 싶은 이선의 무의식이 강하게 드러나는 수계 공간이라고 할 것이다.

이후의 초월계 공간들 역시 수계의 성격을 질게 드리운 곳들이다. 이선이 봉래산에 이르러 선약이 있는 산상으로 향하고자 한다. 그러나 천길 벼랑이 앞을 막는다. 봉래산의 선관들이 자신들과 바둑이나 두고 산천이나 구경하자고 말한다. 이때 이선은 낙담하고 조롱당하는 심리적 상황에 처하지만 그 역시 일시적이다. 한 선관에게 차를 얻어 마시고 봉래산에서 놀다가 능허선의 딸 설중매와 부부였던 일을 기억해 낸다. 설중매가 양왕의 딸 매향으로 환생한 사실도 깨닫는다. 이선은 마침내 선관 구류선에게 혼백이 돌아오는 환혼수와 썩은 살이 살아나는 옥지환, 말문을 열어주는 개언초를 얻는 데 성공한다. 이 대목에 이르러 이선은 현실

계에서 불거진 혼사 장애 문제의 원인을 깨닫는다. 양왕의 딸 매향이 전생에 자신과 부부였던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²⁵⁾ 이는 이선이 현실계로 돌아와 숙향과 혼인하고 매향과도 혼인하여 화락하게 여생을 마치는 결론²⁶⁾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주목할 것은 봉래산으로 입도하는 과정 역시 용자를 타고 이동하고, 천태산으로 가는 길 역시 배를 타고 이동한다는 사실이다. 천태산 산중에서는 내가 깊어 건너지 못하자 중이 나타나 육환장을 던져 다리를 만들어 준다. 마고할미를 만나고 돌아 나오는 길에 잠든 곳도 냇가이다. 영약을 구해 돌아오는 길도 용자가 시키는 대로 “배에 올라 눈을 감고 있었더니 순식간에 황성 영회관 물가”에 닿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선의 육체로 넘나들지 못하는 경계는 어김없이 수계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그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하는 그의 심리적 고통을 해소해 주는 대상으로 수계의 존재들이 나타난다. 이선의 행로마다 다양한 수계 공간이 펼쳐지며 난관 해결의 기능을 한다. 그런 가운데 이선의 심리적 중압감을 덜어 주는 역할을 한다. 현실계에서 봉래산까지 펼쳐지는 이선의 동선을 보면 상상의 세계를 마음껏 소유하는 인상을 준다. 물리적 장벽이 없는 영적 세계가 다양한 수계 공간으로 변주되고 확대되는 가운데 등장인물의 심리적 고통이 해소된다.

25) 경일남은, 종전의 연구에서 밝히지 못했던 이선의 적강 원인을 ‘사통죄’로 규명했다. 즉 이선이 천상에서 설중매와 혼인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월궁 소아와 희롱하여 남녀상회죄에 연루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 사통죄가 이선이 하강해 겪는 고난의 기본적 생성 원리로 작동함에 주목했다. 경일남, 『숙향전의 고난양상과 결연 의미』, 『논문집』 24,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7, 24-25쪽 참조.

26) 이선은 구약여행을 통해 개인적 영달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영역에서도 존재의 질적 변화를 거둔다. 이 여행을 통해 매향과의 결연을 획득한다. 이것은 곧 공적 영역에서 갈등을 유발한 대상과 우위의 입장에서 화해함으로써 확고한 위치를 자리매김한다. 결국 구약여행을 통해 그를 둘러싼 세계와의 모든 갈등을 해소한 것이다. 이명현, 『숙향전의 통과의례적 구조와 의미: 신화적 구조와 세계관의 변용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123쪽.

<숙향전>은 살펴본 것처럼 정신적 구유처로서의 수계 공간을 선사한다. 이것은 당대의 혹은 전대의 문학 전통 안에서 습용되던 수계 공간을 변주하고 확대한 것으로 다가온다. 물리적 장벽을 제거한 다양한 층위의 수계 공간, 그 안에서 현실적 고심을 해소하는 이선을 통해 자유자재한 당대인의 상상력과 기발한 창작의식을 엿볼 수 있다.

4. 결론

이 글은 <숙향전>에 나타난 ‘고통’의 문학적 해석에 목적을 두었다. <숙향전>의 ‘고통’은 우선 여주인공을 육체적 소멸 주체로서 형상화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최치원>,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하생기우전>, <운영전>, <주생전> 등의 서사 안에서는 여주인공이 죽고 나면 남주인공 역시 육체적 소멸을 경험하거나 속세를 떠나 자취를 숨겨버린다. 작품의 동력을 잃은 셈이다. 그와 함께 중·단편 분량으로 서사의 막을 내린다. 조선 후기, 변모하는 시대상과 세계관에 부응하기 위해 작가는 서사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여성 인물의 육체적 소멸을 부정하기에 이른다. <사씨남정기>, <구운몽>, <최척전>, <심청전>, <춘향전> 등의 여성 인물이 대표적인데, 그녀들은 죽음의 세계로 떠나는 대신 현실계의 관습과 제도에 맞서 기나긴 노정 위에 서서 간난신고의 시간을 감내하는 인물로 거듭난다. 이전 서사작품의 인물보다 강한 생명력의 주인공이 탄생하면서 장형의 서사작품이 문학사에 출현한다.

<숙향전>의 숙향은 전통적이고도 관습적인 육체적 소멸 주체로서의 형상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녀는 병란 속에서 부모에게 유기된다. 부모의 어린 딸 유기는 서사의 향방이 육체적 소멸이 아닌 고통의 시간으로 연결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숙향의 고통은 표진강 투신과 갈대밭 화염 속에서 극대화된다. 알몸으로 동서유리하는 걸인의 형상에서 술

파는 노파의 집에 의탁해서는 기생의 신분으로 떨어진다. 이선을 만나는 과정에서는 불구 신세로 전락한다. 육체적 훼손 이미지는 시부와 친부에 의한 육체적 소멸 위협으로 이어진다. 당대의 제도권 하에서 보호 받지 못한 채 소외되었던 여성이 당한 고통을 형상화함으로써 리얼리티를 선사한다.

<숙향전>의 ‘고통’은 또한 영적 초월과 속박의 형상화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 소설은 현실계와 초월계를 포용하는 이원론적 세계관의 서사를 펼친다. 이선에게는 현실계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구가하는 곳이 초월계라면, 숙향에게는 오히려 현실계의 억압을 더욱 강조하는 속박의 형상으로 초월계가 그려진다. ‘고통’의 강도 면에서 숙향의 삶이 육중한 무게감으로 다가오고, 이선의 삶은 무겁게 침잠한 작품 분위기를 활달하게 전환하는 상승감으로 다가온다.

이선의 현실계는 숙향의 경우처럼 고통의 서사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의 시련은 황태후를 살리기 위해 떠나는 구약담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갈등뿐이다. 이마저도 영적으로 초월한 공간에서 해소하는 시간으로 연결된다. 그에 반해 숙향의 영적 경험은 오히려 현실계의 고통이 생성한 원인을 깨닫도록 하고, 자신의 운명에 순응토록 하는 속박으로 작동한다. 월궁에서 득죄하고 내려온 선녀이고, 앞으로 15년에 걸친 인고의 시간을 감내해야 지상의 부모와 재회할 것이란 예언, 그리고 다섯 번의 죽을 액을 넘기고 나서야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예언은, 숙향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없도록 속박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이처럼 ‘고통’의 양상이 초월과 속박이라는 양상으로 나타난 것은 그만큼 복잡한 삶의 다양성을 드러내기 위한 문학적 방편이다.

고통의 형상을 이처럼 나누어 놓은 데에서 그 문학적 기능을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기능은 노정형 서사의 완급 조절이다. <숙향전>은 정착지를 떠나 일정한 목적지로 떠났다가 귀환하는 노정형 서사의 전형을 보여준다. 숙향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계로, 이선은 영혼의 불

멸을 보여주는 이계로 노정을 떠난다. 숙향의 표진강 투신은 ‘자살’이라는 매우 극단적 육체적 고통을 보여준다. 숙향이 마주하는 또 다른 고통으로 태장과 수장이 있다. 친부와 시부가 숙향에게 가하는 태장과 수장 역시 서사의 완급 조절을 하는 육체적 고통으로 작용한다. 이 소설의 ‘고통’은 노정형 서사의 완급을 조절하고, 그 이면에 당대인의 삶을 새겨 놓아 주목할 만하다.

두 번째로 ‘고통’은 수계(水界) 공간의 변주와 확대에 기여한다. 숙향의 고행담과 이선의 구약담은 물론 숙향의 부친이 위기에 빠진 거북을 구해주는 시혜담, 거북이 은혜를 갚는 보은담 등에서 수계 공간은 특별한 배경으로 등장한다. 숙향에게 영향을 미치는 수계 공간은 표진강뿐이다. 그런데 이선이 경험하는 초월계는 이르는 곳마다 수계 공간으로 설정된다. 신비한 수계 공간의 설정은 현실계의 문제에 봉착해 구약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선의 심리적 고통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한다. 현실계에서 봉래산까지 펼쳐지는 이선의 동선을 보면 상상의 세계를 마음껏 소유하는 인상을 준다. 이것은 당대의 혹은 전대의 문학 전통 안에서 습용되던 수계 공간을 보다 다양하게 변주한 것이다.

<숙향전>은 이처럼 ‘고통’이라는 보편적 삶의 한 단상을 독창적 서사 기법으로 녹여 낸 작품이다. 여주인공을 통해서는 당대의 민중이 처해 있던 억압과 핍박의 현실을, 남주인공을 통해서는 현실 문제를 이상세계로 옮겨 해소해 보고자 하는 관료의식, 혹은 귀족 후예로서의 호사로운 삶을 투영해 낸다. 남녀주인공의 각기 다른 고통의 형상은 당대의 삶을 실사적으로 읊기는 동시에 행복을 염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역으로 구현한 것이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경일남, 『숙향전의 고난양상과 결연의미』, 『논문집』 24,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7, 19-40쪽.
- 구충희, 『숙향전의 이본고』,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3.
- 김경미, 『숙향전-‘버려진 딸’에 대한 기억의 장』, 『고전문학연구』 39, 월인, 2011, 103-123쪽.
- 김문희, 『숙향전의 환상성의 창출양상과 의미』, 『한민족어문학』 47, 한민족어문학회, 2005, 55-80쪽.
- 김문희, 『숙향전의 환상담의 서사전략과 독서효과』, 『한국학연구』 37,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165-192쪽.
- 김수연, 『소통과 치유를 꿈꾸는 상상력, 숙향전』, 『한국고전연구』 2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429-459쪽.
- 김응환, 『숙향전의 도교사상적 고찰』,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3.
- 김현룡, 『한중소설설화비교연구』, 일지사, 1977.
- 나도창, 『숙향전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4.
- 민경록, 『숙향전 배경설화의 종합적 연구』, 『어문론총』 32, 경북어문학회, 1998, 59-82쪽.
- 민경록, 『숙향전의 서사 구조와 의미 연구』, 『문화전통논집』 8, 경성대학교 부설 한국학연구소, 2000, 103-126쪽.
- 박경원, 『숙향전의 구조와 의미』, 『어문교육논집』 12,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1992, 247-259쪽.
- 박태근, 『숙향전의 문체론적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4.
- 서유경, 『숙향전의 정서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22, 한국고전문학과교육학회, 2011, 65-93쪽.
- 성현경, 『한국소설의 구조와 실상』, 영남대학교출판부, 1981.

- 『숙향전』, 『한국고전문학전집』 5, 황폐강 역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
구소, 1993.
- 양혜란, 「숙향전에 나타난 서사기법으로서의 시간문제」, 『우리어문학연
구』 3, 외국어대학교 1997, 103-128쪽.
- 임성래, 「숙향전의 대중소설적 연구」, 『배달말』 18, 배달말학회, 1993,
155-176쪽.
- 이기대, 「숙향전에 나타난 생태적 세계관」, 『국제어문』 37, 국제어문학
회, 2006, 61-89쪽.
- 이명현, 「숙향전의 통과례적 구조와 의미 : 신화적 구조와 세계관 변
용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4권 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113-135쪽.
- 이상구, 「숙향전의 문헌적 계보와 현실적 성격」,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
사논문, 1994.
- 이창현, 「경판방각소설 숙향전 판본의 재검토」, 『열상고전연구』 31, 열상
고전연구회, 2010, 37-68쪽.
- 정종진, 「숙향전 서사 구조의 양식적 특성과 세계관」, 『한국고전연구』 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1, 206-229쪽.
- 정한기, 「숙향전의 구조와 초월적 모티프의 작품 내적 기능에 대한 연구
: 국문 경판본과 한문 활자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관악어문연
구』 20,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5, 441-472쪽.
-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 조혜란, 「숙향전의 숙향·청순가련형 여성주인공의 등장」, 『고소설연구』
34, 월인, 2012, 39-63쪽.
- 조희웅, 「17세기 국문 고전소설의 형성에 대하여 : 숙향전을 중심으로」,
『어문학논총』 16,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97, 19-31쪽.
- 지연숙, 「숙향전의 세계 작동 원리 연구」, 『고소설연구』 24, 월인, 2007,
191-217쪽.

차충환, 「숙향전 이본의 개작 양상과 그 의미 : 한문현토본과 박순호본 ‘숙향전이라’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4, 경희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2000, 119-152쪽.

최기숙, 「17세기 고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유량과 축출, 그리고 귀환의 서사」, 『고전문학연구』 38, 월인, 2010, 37-74쪽.

최재웅, 「숙향전의 공간 구성 원리와 의미」, 『어문연구』 43, 어문연구학회, 2003, 473-499쪽.

<Abstract>

Literary Interpretation of 'Pain' Represented in *Sukhyangjeon*

Kim, Hyun-Hwa*

The heroine who had repeatedly experienced the physical extinction in the narratives such as 『Choi Chi Won』, 『Manboksajeopgi』, 『Leesaenggyujangjeon』, 『Hasaenggiwoojeon』, 『Woonyoungjeon』, is reborn as a heroine with strong vitality that endures 'pain' against the customs and institutions of the real world, denies the world of death in the narratives such as 『Sassinamjeonggi』, 『Guwoonmong』, 『Choicheokjeon』, 『Chunhyangjeon』 in accordance with the changing phases of the times, and the world view in the late Chosun. 『Sukhyangjeon』 is the work based on a series of literary conventions.

The imagery of 'pain' represented in 『Sukhyangjeon』 is expressed into two aspects. 'Pain' embodies the heroine as the subject of physical extinction.

Sukhyang is a figure that shows the image as a traditional and customary physical extinction. It is the subject that experiences the physical extinction due to abandonment, drowning oneself, wandering, deformity, buried at sea and stone to death. It is the aspect that embodies the pain of the woman who has been left out of the protection under the mainstream system at that time.

The 'pain' of 『Sukhyangjeon』 is also expressed into the imaginary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spects of spiritual transcendence and restriction. If the place is a transcendent world where he can enjoy the freedom escaped out of the oppression of the real world for Lee Sun, the transcendent world is expressed into the image of restraint that emphasizes the oppression of the real world for Sukhyang. The fact that the aspect of ‘pain’ is expressed into the transcendence and restriction, is due to the literary way to reveal the complex life diversity.

The literacy function of ‘pain’ can be searched from the aspect that contributes to the tempo control of road movie type narrative. 『Sukhyangjeon』 show the typical pattern of road movie type narratives that leave the settlement for certain destination and return. ‘Pain’ adjusts the tempo of road movie type narratives, functions to carve the life at that time. ‘Pain’ also contributes to expansion and variation of the water related space. The setting of the water related space functions to solve the problem of the real world.

『Sukhyangjeon』 realizes the oppression and persecution faced by the people at that time through imagery of each different “pain” of male and female characters. In addition, it realizes the bureaucracy that attempts to solve the problem of real world by moving it to the transcendence world, or the human nature that desires for a happy life.

Key Words : 『Sukhyangjeon』, Pain, Physical Extinction, Oppression and Persecution, Journey, Water Related Space

■ 논문접수 : 2017년 11월 6일

■ 심사완료 : 2017년 12월 11일

■ 게재확정 : 2017년 12월 18일

